

제2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26일 (수) 10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1면
-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위원회안) 17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김광운** 의사일정 제1항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현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께서는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연합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준 초광역건설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장님과 안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담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초광역건설환경과는 충청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 철도·도로 인프라 개선,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농산·환경 보호 등을 중심으로 현안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충청권이 긴밀히 협력하며, 상생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책자에 따라 2025년도 초광역건설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신규 사업 순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는 초광역도로팀, 초광역철도팀, 초광역교통팀, 초광역농산환경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14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금년도 초광역건설환경과 예산은 총 3억 3100만 원입니다.

2쪽 초광역건설환경과의 주요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하여 사무를 개시하였고,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 기본 계획, 사무 처리 기본 계획 등 초광역 거버넌스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초광역건설환경과에서는 충청권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합동 실무 협의체인 충청권 초광역 UAM 실무 협의체를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광역 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광역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지방시대 자치 분권 실현과 지역 중심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초광역건설환경과 전략은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개 이행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16쪽, 초광역건설환경과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의 이행 과제를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로 17쪽,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등 고속도로망 확충 필요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건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충청권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 용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경부 고속도로 확장 사전 및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정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수립에 충청권 신규 노선 정부 건의 및 반영 추진과 세종~논산 고속도로 사업이 국가 도로 정책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에 추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충청권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철도망 구축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필요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충청권 신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건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과 미래 교통수단 육성입니다.

공주~세종 광역 BRT 사업 추진으로 충청권 광역도시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충청권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광역 BRT 운영 관련 권한이 연합으로 위임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K-UAM 로드맵 수립에 선제 대응 하기 위해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민관 협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UAM 생태계 조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쪽, 초광역 농산·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충청권 청년 농업인의 귀농 정착 지원과 농업 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청년 농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 충청권 통합형 먹거리 상생 운영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농식품 스마트 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 문화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세종·충남에서 추진 중인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충청권 4개 시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충청권 산림·녹지·습지 등 생태계 복원 추진을 위해 타당성 용역 추진 검토 및 관련 사업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 도입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충청권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UAM 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충청권 청년 농업인의 귀농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지식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충청권 청년 후계 농업인을 선정하고, 10월경 청년 농부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초광역건설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옥 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행복도시에서 탄천 연결도로 있지요. 여기는 사업 자체가 아까 보니까 예타 미확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 계획을 갖고 왔던 사업이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시작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2020년도부터 국토 종합 계획에도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23년도 기재부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24년도 작년에 예타에 통과가 안 된 사업입니다.

○ **박미옥 위원** 예타에 통과 못 한 이유가 뭡니까?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으로다가 해서 통과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미옥 위원** '경제성이 안 나오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 **박미옥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권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다가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를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옥 위원** 논리를 그냥 만들어가면 안 되고 논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세워 봤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세종 행복도시에서 탄천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부터 진행을 하고 예타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엄청 큼니다, 이 부분이.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외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소외감을 많

이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행복도시~탄천’이지만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라든지 또는 기타 지역으로, 인접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행복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요 도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예타도 미확보됐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겠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박미옥…….

○ **박미옥 위원** 이거는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 **박미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주~세종 BRT 노선 추진, 지금 진행이 많이 됐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 **박미옥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많이 되어 있습니다.

○ **박미옥 위원** BRT가 충청광역연합의 목적과 상당히 부합하는 세종과 공주를 잇는 BRT 노선이지요. 그렇지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하나 된다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끝 노선이 어디에…… 시작과 끝 노선이 어떻게 되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세종 BRT 구간은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세종시까지의 구간입니다.

○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공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오는 노선 과정에 협의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BRT 노선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오면서 조금……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작년도 11월에 토목 공사가 착공이 됐고요, 완공은 '26년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 **박미옥 위원** BRT 노선이 조금, 우리가 여기에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 새로운 논리를 확장해 나가야겠다는 내용도 여기 담겨 있는데 공주~세종 광역 BRT 노선을 추진하면서 논리가 부족했던 점, 또 앞으로 다른 BRT 노선을 확장해 갈 때에 참고해야 되겠다는 점들이 나온 게 있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은 제

가 아직 학습이 덜 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직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농부 육성 네트워크 좀 여쭙보겠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도 스마트팜이라든지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광역 단체들이 추구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렇죠, 처장님?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있습니다.

○ **박미옥 위원** 우리가 4개 광역연합인데, 4개 광역연합에서 각자 갖고 있는 청년 농부에 대한 추진 대표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통합 시스템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잠깐 얘기 듣기로는 청년 후계 농업인 이런 분들이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책을 펴려면 기본적으로 4개 시도에 중점 청년 농부를 위한 정책의 기초가 뭔지 처장님이 알고 계셔야 여기에 수반되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충남은 스마트팜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묶어서 우리 광역연합이 나아가야 될 청년 정책으로 삼으실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각 시도에서는 농업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미옥 위원** 한 가지씩만 중점 정책.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충북형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나 세종은 농업 분야에서 다른 데보다 지역적으로 작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슈가 된다는 표현은 좀 어렵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4개 시도가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점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충북에서 그 관련된 업무를 들어봤을 때는 청년 농부 육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도 농지은행을 하고 있고, 농촌 지역의 젊은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미옥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스마트팜은 사실 국가적인 기조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청년이 얼마나

유입될 건지에 대해 지금 -우리가 해 오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이 많거든요.

그런데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더 광범위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인 네트워크, 청년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준비가 그닥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듣도록 하고, 농산물 통합 관리 체계에 대한 말이 좀 나와서요, 사실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 그리고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연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광역연합 내에서는 한 지역처럼 농산물의 유통·판매 이런 것들이 광역망을 통해서 원활해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한번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사무처장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신 거는 과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팀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와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드릴 테니까- 2개 정도만 질의하시고…….

○ **박미옥 위원** 저는 한 번으로 끝냈어요. 한 번만 하고 말라고요.

○ **위원장 김광운** 예, 그러니까 2개 정도만 질의하시고 또 넘겨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님.

○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업무 계획 보고, 질의 잘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에 관계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사실 이미 충북에는 충북형 도시 농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다가 도농 상생형 일자리 차원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또는 도시민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충북형 도시 농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3개 광역에서 이런 유사한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도시 농부 쪽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충북에서는 약간 성공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미 2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졌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은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충북형 도시 농부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광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수현 처장님에게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보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안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에는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 충북형 도시 농부라고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도시 농부를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농촌 지역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인력 부족은 모든 농촌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농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부분은 각 시도마다 농업 정책이 달리 있지만, 그 정책을 각 청년 농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서 저희 충북의 도시 농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충남의 특수 시책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안치영 위원** 이 사업이 충북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4개 광역 또는 더 나아가서 17개 광역으로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 폐단이 좀 있어요.

그 단점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있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제가 알기로 이게 자부담, 도시 농부가 도입이 되면서 농촌의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민간 쪽에서 반발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치영 위원** 맞습니다. 4시간 근로로 최대 8만 5,000원, 교통비 포함해서 임금을 받다 보니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 농부 또는 충북형 청년 농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쓸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정작 근로자들을 모집하려면 임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인력 구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서 농가와 또 사업의 실질적인 운용 지침에 있어서는 그런 단점들은 빼고 진행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안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또 반대적으로 보면 농촌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도시 농부에 대한 인건비가 한계점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로 제가 실무 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과 문제 되는 부분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치영 위원** 어쨌든 이수현 처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신 건데, 충북형 도시 농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듯이 그래도 우리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사업은 사실상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이나 외국인근로자 의존도 감소가 되면서 비단 충북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권 모두의 문제로 인지를 하시고 사업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안치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은 광역철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국토부에서 지난 21일, 철도 사업 관련해서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침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광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 **위원장 김광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건설환경과장 오세준입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나 도로 대규모 사업은 기재부에서도 현재 재정 사업에서 민자 사업으로 많이 전환하는 형태거든요. 먼저 보도 내용을 보면 민자 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을 발굴했고, 나머지 사업을 발굴해 가겠다 이런 형태의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재 재정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도로나 철도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유도해 가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색을 해 나가겠다는 모호한 발언을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예전에 사업 자체가 일부 구간에서는 반려된 적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2 경의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일단은 B/C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서 타당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의 사업을 발체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구호에 그치고 내용이 없는 부분으로 시간만 허비할 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에서 4개 시도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

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지금 저희가 시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철도와 도로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과 신규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은 예산 확보라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신규로 가는 사업들은 국가 계획에 담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4개 시도와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노선의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다시 한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운**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페이지 19쪽의 미래 교통수단 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UAM 추진 과정이라든지 향후 방향성 그다음에 용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통수단 UAM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사항으로다가 4개 시도에서 관련된 부서와 저희가 합추단 시절에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내년에 시범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세워서 그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용역비 얼마예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용역비는 지금 예산에 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기간은 저희가 내년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과업 지시 만들고 작성을 한 다음에 과업 수행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 한국항공공사나 SK와 함께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진전 사항이 좀 있나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있습니다.

추진단 시절에 그거를 편성하면서 실무 협의회 한 두세 번 모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달에 추진단이 종결되고 저희 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1~2월 동안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있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미리 공유를 해 드리면서 조언받을 거 있는 것은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란희 위원** 두 차례 정도 열렸을 때 특별히 도출된 문제라든지 중점 과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실무 협의체 구성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아직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왔다기보다 포괄적으로다가 서로 같이 잘 해 보고, 다른 경남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해 나가자는 취지로다가 개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란희 위원** 4개 시도의 UAM 준비 속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대전은 제가 기억하기로 정류장 관련해가지고 국비도 확보했던 거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4개 시도의 진행 속도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박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은 복합환승센터 선정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 **박주화 위원** 선정된 거로 보도…….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도 지금 잠시 중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서 아직 저희 연합과 구체적으로 공유한 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움직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도 방문하면서 좀 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박란희 위원** 미래 교통수단으로 사실 굉장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잘 진행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비용적인 측면이 아직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추진하는 거니까 잘 숙지하시고 또 4개 시도가 균형을 맞춘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자기 지역에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청광역연합에서 책임이나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황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일들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선행되어야 될 문제점이 앞으로도 도출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원 근거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 구축이 연구용역 단계에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 기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 수행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앞으로는 진행 과정을 위원회에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리고 민·관·정이 함께 움직여야 될 철도망 구축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라든가 그런 곳 많이 마련하셔서 앞으로 불협화음이 없게끔 미리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한데 앞으로도 -첫날이기는 하지만- 다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좀 더 연구해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 저희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째 되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추진단에서도 노력을 해 왔고 저희 연합 직원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꼼꼼히 섬세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역 사업을 갖고는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각 시도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연합의 의지와는 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가거나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합은 전 직원 모두,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해서 연합이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운**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격려차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청의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준비할 게 참 많구나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가 아닌 한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각 의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세컨드로 와서 하다 보니 다들 한마음이 된다는 게 지금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함께 뭉쳐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결국 지금 두 가지 안건이지요.

교통을 어떻게 균형발전 해서 우리 충청권이 빠른 시간에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건가, 그 안에서 또 먹거리·불거리·즐길거리를 함께 공유하면서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안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25년도 마지막 회의 할 때는 그래도 같이 여기까지 왔구나 뿌듯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돼서 서로 소통하고,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토론회나 이런 거를 자주 열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규 위원**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현안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초광역권 계획 수립,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20년 주기로 세워지는데, 인구 소멸, 지방 소멸론, 인구가 감소되고 GTX 교통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맞습니다.

○ **김응규 위원** 그래서 우리 초광역연합에서 국토부에 가서 이러한 사항을 각 지자체에서 충남도·충북도·세종·대전 나뉠 광역 교통망이나 기타 등등 4개 광역 시도의 공통된 의제를 가지고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국토부나 관계 중앙 부처에 가본 적이 있는지, 가서 협의를 했다면 어떤 협의를 했으며 어떤 의견을 듣고 왔는지, 또 수정 개발 계획에 우리 초광역의 회의 공통된 의제를, 과제를 어떤 식으로 요구할 것인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김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초광역 계획에 대해서 20년 단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2억을 세워서 진행하려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 담당, 국토교통부를 저희 실무자들이 몇 번 방문했습니다.

다만 지금 계획 수립을 위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 사업까지 아직 요구해서 받은 건 없지만, 방문을 해서 저희 초광역권에 대한 얘기를 실무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도 방문을 하겠고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의회사무처도 같이 가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국토부나 관련 부처, 국회도 찾아가야 되고 할 부분이 많은데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응규 위원** 중앙 부처 가서 공통된 과제·의제를 설명해 주고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40년까지 계획인데, 이것이 잘돼야 만이 정말 초광역연합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지, 중앙 부처의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관철되었을 적에 권한 위임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담아서 국가 계획과 같이 해서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응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운**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어느 언론사에서 사업 지연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2026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비 증액으로 총사업비가 3,620억 원 늘었으며, 신규 역사 등 후속 공정 설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업비 증가가 15%를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사업 지연 및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을 잇는 핵심 교통망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개통 시점과 운행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력 부재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의 장기화 및 예산 낭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충남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관통해 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 개통이 예고됐지만, 제대로 진척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언제 이 사업이 완료돼 미니 전철이 운행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는 하나 갈수록 태산이라 할 것이다.

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지장물 이설 공사비 증가와 신규 역사 등 후속 공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 문제다. 이 중 지장물 이설 공사비 등 부분은 지난해 11월 기재부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를 통해 공사비 1,037억을 증액시키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고 한다.

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총사업비를 자극해 3,62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위태위태한 형국이기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역사와 차고지 건축 분야가 포함된 후속 공정 설계가 문제인데 여기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또 한 번 총사업비를 놓고 기재부와 철도공단이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닭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업비 증가다. 지장물 이설, 정차역 개량에다 차고지 및 역무 자동화 센터 구축, 여객 편의시설 등 추가해 설계를 다시 했을 때 결과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최초 예상치보다 곱절 뛰어오를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이를 구실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오면 도리가 없는 일이다. 철도공단 측은 지침상 15% 이상 총사업비가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되지만 면제 조건에 해당되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장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대전과 충남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평가된다. 기존 호남선과 경부선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35.4km 구간을 이어주는 사업으로 운행 횟수는 2030년 말 기준, 1일 2만 7,259명의 교통 수요를 감안 하루 편도 65회로 잡혀 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15% 이상 사업비가 증가됐을 때 우리 광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15% 이상 사업비가 증가됐을 때 우리 광역에서는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언론을 보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만약에 15%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말씀대로 타당성 재조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희는 충청권 지역 균형발전 목적을 갖고 정치권 협조를 받고 여러 통로의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면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광역연합에서만 아니라 관련된 부처나 관련된 자치단체 통해서

같이 계속 기재부를 방문한다거나 국토부를 방문해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고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인데, 어제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4명이 돌아가시고 6명이 부상을 당하셨는데, 어쨌든 큰 사고입니다.

일단은 상판 붕괴로 인해서 공사의 차질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는 '26년 착공 예정이죠?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26년 몇 월 착공 예정이었습니까?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26년 6월 정도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6월인데 상판이 붕괴되면서 공사 지연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불가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그러면 불가피한 사고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과연 마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처장님,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사고가 발생해서 그 결과로 준공 자체가 한 1년, 길면 몇 년 늦어질 수 있다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나 경기도 관련된 기관, 자치단체하고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사고가 굉장히 대형 사고이다 보니까 수습은 바로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동향 자세히 다시 파악해 보면서 20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건의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하여튼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요, 추후 진행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위원회안)

(10시 55분)

○ **위원장 김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복도시~청주공항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의안 등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출석 위원(8인)**

김광운 안치영 김응규 박란희 박미옥 박주화 이옥규 이한영

○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형령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사 무 처 장 이수현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